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0월 2일(주일) 제1117호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 D-3

묵상하는 목수들

Contemplative Carpenters

5일~8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 오늘까지 참가신청 일과 영성의 대가 폴 스티븐스 교수, 이재훈 목사 강의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이 드디어 막 오른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5~7일은 저녁 7시 30분, 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묵상하는 목수들(Contemplative Carpenters)'을 주제로 열리는 '요셉행전'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남성들을 위한 집회다. 크리스천으로서 일터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나누고 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동안 이어진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과 영성, 평신도 신학의 세계적 권위자 폴 스티븐스 교수(리젠트 칼리지)가 나흘 동안 네 번 강의를 한다. 5일 '거룩' (다니엘, 비협조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일

하다), 6일 '리더십' (느헤미야, 왕국에 영향을 미치다), 7일 '사명' (바울, 일터에서의 갈등과 저항에 맞서다), 8일 오전 '영성' (예수, 소명의 거룩함을 보여주다)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8일 마지막 강의를 통해 일터선교사로 결단하고, 헌신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진호 장로(MYSC 대표), 천종호 판사, 방선기 목사(직장사역 연합 대표), 방송인 강석우 집사, 문애란 대표(G&M글로벌문화재단)는 게스트로 출연한다.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에 참가를 원하는 20대 이상 남성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오늘이 마감이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회비는 1만원.

집회 기간 동안에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이나 교회로 오는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셔틀버스는 5~7일은 오후 6시~8시까지, 8일은 오전 9시~10시30분, 11시50분~오후 2시까지 양재역 10번 출구 앞에서 탑승하면 된다.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성도는 양재역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 예배 끝나고 사랑홀 로비에서 주차스티커를 받으면 환승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차량에 3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토요일 집회 때는 청바지에 흰색 상의를 착용해야 한다. 여성들은 기쁨홀에서 중보기도와 영상으로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관련기사 2면>.

문의: 02-570-7322, 732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늘,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CGNTV가 오늘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실시한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주제로 열리는 정기후원 약정행사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CGNTV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서비스로 참여할 수 있다. 기존 후원자는 증액후원을 신청할 수 있다. CGNTV는 오늘 하루 동안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서 'CGNTV 안내 데스크'를 운영한다. 정기후원 약정행사 안내하고, 드림통(저금통) 수거 및 배포를 한다.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오는 10월 9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사회선교부가 10월 9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이날만큼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로 오는 셔틀이 운영된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허가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살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 양재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에게만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준다. 외부 주차장(양재 환승, 구립, 시민의 숲)도 이용할 수 없다. 외부 주차장을 꼭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차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올 경우에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교회에 와야 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일과 신앙 리더십 훈련 코스

주제: Marketplace Ministry

일시: 10월 10~13일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2층 순형홀

강사: 폴 스티븐스, 크레이그게이, 클라 이브링, 조셉파이 외

문의: 02-573-7514, 7438(회비: 30만원)

주최: CCF, IMT (한국어 통역과정)

요셉행전 D-3 김 과장의 하루

“매일이 고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이 막 오른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남성들을 위한 집회다. 집회를 앞두고 크리스천 남성 직장인을 만나고 싶었다.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해서다. 김여환 성도(강남D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A은행 인재개발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모란 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손해 볼 때도 있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직장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았어요. 매일 고비가 찾아와도요”

김 과장은 직장생활 10년차다. 그는 강남D공동체에서 신앙 좋은 순장으로 칭찬이 자자하다. 그는 직장이 곧 선교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이다. 그가 버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

모란 돌이 정 맞는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이 매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QT를 한다. 출근하자마자 기도하고 QT하는 일과는 김 과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말씀이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지나가던 이 과장이 인사를 건넨다.

“할렐루야! 오늘도 열심히 하네.”

직장에서 기독교인임을 공개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다. 연예인이라도 된 것 같다. 이 과장도 김 과장이 신앙생활 하는



김여환 성도는 일터에서도 항상 말씀을 읽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

것에 관심이 많다. 김 과장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기라도 하면 같이 쏘아붙인다.

“김 과장, 오늘은 식사기도 안 하네?”

이 과장 정도면 양반이다. 끈질기게 술 마실 것을 강요하거나 일부러 주일에 일정을 만들어 교회에 못 가게 하려는 경우가 더러 있다.

“기독교는 개독교야 라고 막말을 퍼붓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실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도전이 됩니다. 제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마시나 안마시나 문제 ‘술’

점심시간, 후배 몇 명이 김 과장을 찾아왔다. 후배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경을 읽고 신앙고민을 나누곤 한다. 늦은 퇴근 때문에 평일에 배 참석은 꿈도 못 꾸는 직장인들에게 이런 소모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최 대리가 지난주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며 자책했다. 사실 술 마시는 문제는 김 과장에게도 큰 고민거리다. 안 마시면 인간관계에, 마시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식자리에 안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요. 빼는 것도 한 두 번이죠. 회식이나 업무상 술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술은 안 마시지만 김 과장은 회식자리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다. 술을 안 마신다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만큼 서로 불편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회식자리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다 보면 동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김 과장은 교회 다니니까 술은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라고 흑기사를 자청하는 것. 흑기사 중에는 김 과장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니꼽게 생각하는 동료도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항상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과장도 상사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적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배우고 싶다. 요셉행전 집회가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다.

뒷담화는 중보기도 제목!

오후, 식곤증으로 잠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동료들과의 수다는 빼 놓을 수 없는 피로회복

제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동료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뒷담화를 시작한다. 김 과장도 그 무리에 섞여 있다. 김 과장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남들과 다르다. 소문을 퍼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다.

“기독교인이 동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중보기도잖아요. 기독교라면 질색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준다고 하면 방긋 웃으며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실제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샘솟는 사랑으로 동료들을 섬기다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보기도 한다.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적을 빼앗기거나 잔급이 늦춰지기도 한다.

“손해를 보면 섬김이고 뭐고 내려놓고 싶지요. 그때가 바로 중보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꼬이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섬기면 결국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저녁, 이미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다.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던 찰나, 엘리베이터에서 박 차장을 만났다. 그는 썩 반가운 인물이 아니다. 술 좋아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결국 술 마시자는 이야기다. 말이 제안이지 명령에 가깝다. 박 차장은 김 과장의 인사고과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김 과장 교회 다녀요? 괜찮아요. 한 잔 합시다.”

아뵤쑈, 오늘 하루 김 과장이 몇 번이나 유혹에 흔들렸을까?

“매일이 고비고, 매 순간 사탄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크리스천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회칼럼

6년 전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일주일 동안 폴 스티븐스 교수의 동영상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평신도를 영적리더십으로 세우는 방법과 일과 영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거나 실제적이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폴 스티븐스 교수의 강의는 달랐다. 살아있는 강의였다. 그는 삶에서 어떻게 성경적이어야 하며, 영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제시했다.

폴 스티븐스 교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폴

스티븐스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직접 평신도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든 것이다. 그는 실제로 목수가 되었다. 목수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삶을 몸소 깨닫기 위한 결정이었다. 목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입장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만큼 성도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관심은 교회로 이어졌다. 매주 주일 예배시간에 평신도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묻고, 기도제목도 나누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폴 스티븐스 교수

(요셉행전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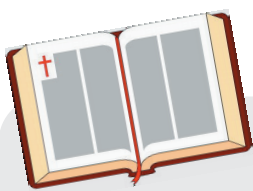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다른 성도들과 함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지적인 가르침보다 인성과 영적인 가르침을 더욱 강조하였다. 내가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었다. 진실성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에 그가 온다. 그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는 이번 요셉행전 집회를 통해 많은 남성들이 네 가지를 얻기를 기대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일터에서 겪는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셋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뜨거운 열망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난관과 수많은 고민들이 산재해 있다. 이번 남성부흥집회 요셉행전이 그 어려움과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윤길중 목사 (양재특별한초대 담당)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 행동이 이뤄지면 보상해주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상을 주고, 성과를 많이 낸 직원에게 보상해주고,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목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보상과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사회에서는 위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율법입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복을 주시고,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징벌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율법 같은 방식으로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만 근본적인 치유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혜입니다. 지금 행동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먼저 보상과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치에 합당한 삶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빌 1:27).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가 부여되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율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

빌립보서 2:1~4

“교만은 가장 큰 마지막 원수요, 겸손은 가장 위대한 친구입니다. 죽기까지 겸손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겸손을 배우십시오.”

거룩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빌립보서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축복, 보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의인이라 여기시고,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된 자답게, 합당하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기보다 율법의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사는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명령이 자기중심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거룩한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1절).

조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있다면’, ‘~한다면’ 이뤄질 것이라는 선행조건이고, 또 하나는 ‘~있음으로’, ‘~있기에’, ‘~하니까’ 등의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후자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 안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해석으로 1절을 다시 읽으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격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 이뤄지는 교제, 자비, 긍휼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축복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경건하고 헌신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믿음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사역과 선교사역을 하고, 말씀 따라 살아도 교만이라는 도전과 위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다름은 늘 “누가 더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2-4절).

이 말씀의 핵심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격려나 위로, 성령 안의 교제, 자비, 긍휼이 있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의 격려와 사랑, 성령 안의 교제와 자비, 긍휼이 풍성해도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C.S.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악이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함

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DNA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타락한 원인이 교만이기에 영적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할 죄가 교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격려가 있고, 성령 안에 교제와 자비와 긍휼과 헌신이 많다고 할지라도 교만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교만은 매우 끈질긴 영적 세력입니다.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온전해져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C.S.루이스의 교만에 대한 통찰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될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다른 죄들은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훨씬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교만과 함께 선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저는 죄를 짓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교만한 기도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선행, 금식을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생활이 오래되었다는 증거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겸손을 통해서만 이루어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안전관리분과위원회 특별대담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소화기, 제세동기, CCTV 설치, 보험가입, 의사대기, 안전체험교육 실시

9월 12일 진도 5.8 지진 발생 이후 지진공포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진도 6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보도까지 잇따르면서 지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진뿐만이 아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안전한가.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안전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박현규 장로(이하 규)와 박구병 장로(이하 병)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배위원은
곧 안전관리 위원,
당황하지 말고
안내에 따라야.”

박현규 장로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



“안전교육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감과 성숙한
시민의식 갖추자.”

박구병 장로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총무)

얼마 전 경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병: “업무상 지진사고 조사를 위해 경주에 갔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경주 시민들이 지진 트라우마(외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작은 여진에도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처럼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해에 무감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과민반응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보이고,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위험요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규: “온누리교회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체험교육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제세동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요령 등을 배우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 외 캠퍼스에서는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369 안전캠페인’ 실시, 노후된 화재경보기와 CCTV 교체, 각종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캠퍼스별 안전관리센터운영 등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 “당회운영위원회 소속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 교회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별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센터 산하에 안전관리실행위원회를 조직해 소속된 캠퍼스의 안전상황을 살피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온누리 안전문화 캠페인 3.6.9’입니다. 3은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3분 동안 3단계 초기대응(연락, 응급조치, 대피)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은 소방, 보건, 시설, 교통, 행사, 정보 6개 섹션의 안전을 살피서 가정과 교회를 지킨다는 뜻이고, 9는 각 캠퍼스 안전관리센터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단축번호 9번에 저장해 두고 교회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 소화기와 제세동기를 설치했습니다. 노후된 화재수신기와 CCTV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하고 원만한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을 해두었고,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의 경우에는 당직의사가 예배당 안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과 11월에 각 캠퍼스별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서빙고는 10월 9일 골프장 마당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서빙고에서 실시되는 안전체험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규: “크게 4가지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제세동기(AED) 사용법,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11월까지 다른 캠퍼스에서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이 실시될 것입니다.”

병: “가능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에 참여해보는 체험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반복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안전체험교육은 그 일환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대처법이 무엇입니까?

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사고 유형 중 하나는 화재입니다. 급성심장마비 등 응급환자 발생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과 예방을 위하여 교회 곳곳에 소화기를 설치했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주일 예배마다 당직의사를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내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빙고는 신형 CCTV로 교체했고, 양재도 교체 중에 있습니다.”

병: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화재나 지진 등 대형사고가 아니라 넘어지거나 성도 간 충돌로 인한 전도(顛倒), 전복(顛覆) 사고입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일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복사고나 충

돌사고는 성도들 각자가 주의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 중에 휴대폰 사용하거나 어린이들이 계단 난간이나 뛰어노는 걸 방지한다든지, 교회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문단속을 하지 않아 외부인에 의한 도난 침입, 상해사건 등이 발생한다든지 등의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로나 복도에 의자나 테이블을 쌓아서 대피통로를 막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피통로는 생명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장마비나 뇌출혈 등의 응급환자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배위원들이 신속한 대처해서 위급상황을 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당직의사나 안전관리센터, 예배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그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당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심과 훈련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훈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평소 훈련을 통해 몸에 배어 있어야 자신과 주변 사람, 교회와 가정, 나아가 사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병: “성숙한 성도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약자와 장애인이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갖춰질 수 있습니다. 안전체험 훈련에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시오. 또한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각 캠퍼스 안전관리센터를 섬겨 주십시오. 당직의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급상황 행동요령

▷지진이 발생했을 때

①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②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탈출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는다.

③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한다.

④ 불이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⑤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위험하다.

⑥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지 말자.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한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해야 한다.

⑦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① 불이 난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소화전의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② 초기진화를 할 수 있다면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도록 한다. 초기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피한다.

③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금지, 계단 이용.

④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되지 않도록,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소화기 사용요령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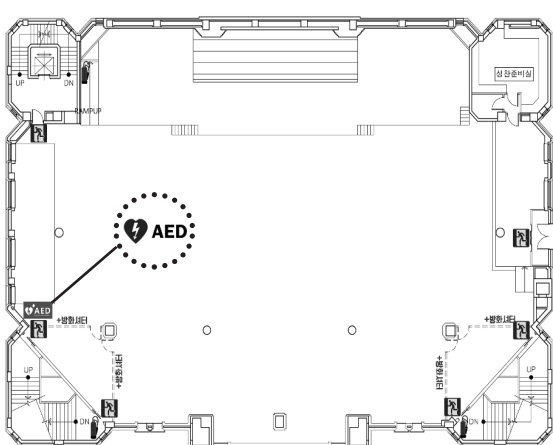
②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이때, 손잡이를 꼭 잡고 있으면 안전핀이 뽑히지 않는다. 아래쪽 부분만 잡고 핀을 뽑아야 한다.

③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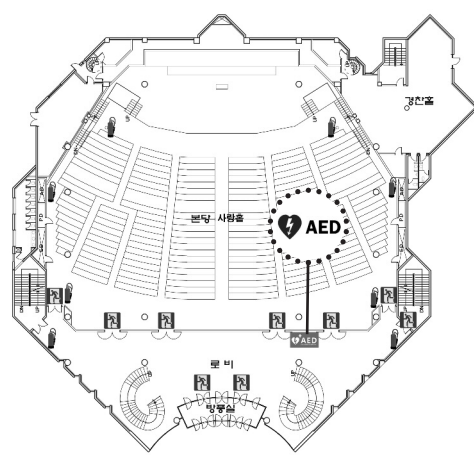
④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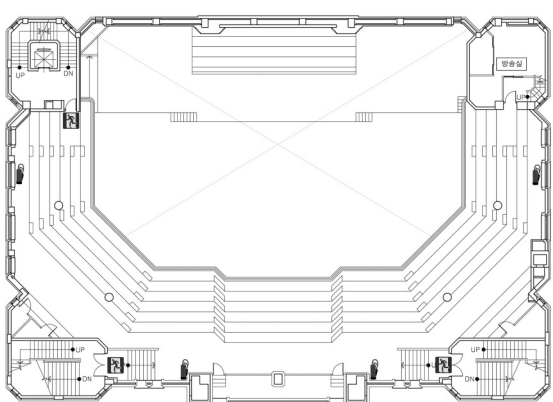
서빙고, 양재 예배당 대피도(비상구, 소화기, 자동제세동기(AED)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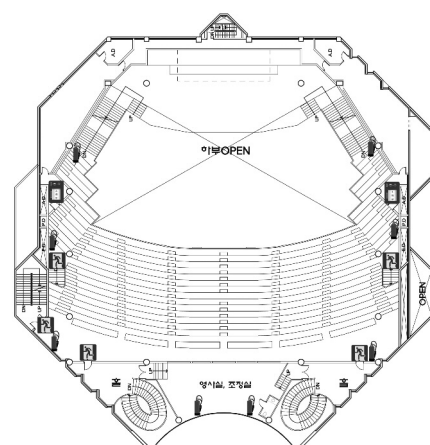
▲ 서빙고 본당 3층.



▲ 양재 사랑홀 1층.



▲ 서빙고 본당 4층.



▲ 양재 사랑홀 2층.



AED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자동제세동기는 심폐소생 응급장비다.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졌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해 적절한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장치로 심폐소생술의 핵심장비다.

심정지 환자는 심장과 호흡이 멈춘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커지지만, 현실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구급대나 의료진이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한 응급대처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 ①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한다.
- ② 자동제세동기(AED)의 전원을 켜다(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
- ③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부착한다.
- ④ “분석중”이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환자에게서 손을 떼다.
- ⑤ “모두 떨어져주세요”라고 외친 후 환자에게 사람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 후 제세동을 시행한다.
- ⑥ 제세동 실시 후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한다.



단체로 안전교육 받을 수 있는 곳

전쟁기념관 비상대비체험관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문의: 070-4109-3225

체험교육: 방독면 착용요령, 심폐소생술 체험, 대피소 위치찾기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체험

광나루안전체험관

위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38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

문의: 02-2049-4000

체험교육: 지진체험, 태풍체험, 방재문답, 연기피난, 소화기체험, 응급처치실습, 각종 재난사고 영상교육

보라매안전체험관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 내

문의: 02-2027-4100

체험교육: 지진태풍체험, 화재, 교통사고체험, 소방시설 실습, 응급처치실습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위치: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

(마천동 산 1-5)

문의: 02-406-5868

체험교육: 식품위생안전, 재난·교통·신변·승강기 안전, 여름철 물놀이 안전, 노인·부모·교사 안전교육, 자전거안전교육



캠퍼스별 안전관리센터

서빙고: 02-3215-3215, 본관 1층 로비 안내실 뒤편

양재: 02-573-9686, 본관 1층 목회지원실

부천: 032-322-9686, 본관 1층 안내실

수원: 031-895-6500, 교회 입구 앞 안내실

대전: 042-825-3642, 본관 4층 목회지원실

남양주: 031-565-9686, 본관 5층 목회지원실

평택: 031-651-9680, 2층 소그룹실

인천: 031-651-9686, 글로벌캠퍼스 지하 1층 목회지원실

강동: 02-475-9686, 11층 목회지원실

양지: 031-331-8171, 본관 2층 목회지원실

양재 병원사역예배, 환우기도모임

“눈물로 씨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임승자 집사와 김경숙 성도 그리고 그녀의 딸 이야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예배와 기도모임이 있다. 양재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아픈 사람들을 심방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한다. 병상에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환우는 물론 사역자도 회복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A에서 만난 임승자 집사도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제가 살아났어요.”
임승자 집사의 고백이다. 아름다운 고백을 노래하는 그녀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그녀는 김경숙 성도(66세)의 세례식 날을 꿈에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고스란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김경숙 성도와 그의 가족들도 그 기쁨에 흠뻑 빠져 산다고 한다. 김경숙 성도의 맏딸 이수진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엄마가 세례를 받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김경숙 성도는 2년 6개월 전 낙상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됐다. 의사는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그녀가 임승자 집사의 손을 꼭 잡았고, “목사님”이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기도원 가던 길에

김경숙 성도는 임승자 집사가 병원심방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만난 대상자다. 양재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에서는 사역자와 환우를 연결해 준다. 임승자 집사와 김경숙 성도는 그렇게 만났다. 김경숙 성도의 맏딸 이수진 자매가 환우중보·심방 요청서를 작성해 요청서에 넣고, 그날부터 임승자 집사가 요청서에 적힌 기도제목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김경숙 성도를 위해 기도하던 임 집사가 심방을 가려고 이수진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도 임 집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다. 어느 날 임 집사가 청계산 기도원을 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김경숙 성도가 생각나서 다시 한 번 그녀의 딸 이수진 자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매님, 오늘도 누군가가 자매님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김경숙 성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임승자 집사(왼쪽)와 김정숙 팀장(오른쪽).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이수진 자매였다. 드디어 연락이 닿았다.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힘들었을 그녀의 마음이 임 집사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마음을 아프게 울렸다. 이수진 자매는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넘게 간호에 매달리고 있었다.

임 집사는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김경숙 성도와 이수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다. 집안을 위해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을 찾았는데 그 기도제목은 잊은지 오래였다. 그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숙 성도와 이수진 자매 그리고 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목사님”... 눈물바다 된 병실

지난 5월 봄꽃이 만개한 그 날 김경숙 성도의 병실에 심방을 갔다. 임 집사 곁에는 김명수 권사와 이영순 집사도 함께 있었다.

“김경숙 성도는 눈도 거의 못 뜨고 누워만 계셨어요. 손가락과 발가락만 겨우 움직이는 정도였죠.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김경숙 성도 뺨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딸에게 기도하는 엄마로 남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복음도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에 복음꽃이 활짝 피었다. 김경숙 성도

가 영접기도를 하겠다고 한 것. 임 집사는 이수진 자매에게 “엄마가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꼭 이야기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딱 일주일 뒤 전화가 왔다.

“집사님! 엄마가 세례를 받으시겠대요. 엄마 표정도 매우 밝아지셨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다음 주 양재 병원사역 담당 김도균 목사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날 임 집사는 김경숙 성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휠체어에 앉으시는데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 인사했더니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꿈쩍도 할 수 없는 환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말을 전혀 못하던 김경숙 성도가 세례식 날 어린아이처럼 웅얼이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이수진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한 뒤부터 웅얼이를 했다고 한다. 김경숙 성도의 웅얼이를 알아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놀라운 광경에 모두가 기뻐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목사님.”

분명 김경숙 성도의 목소리였다. 매우 또렷한 발음으로 “목사님”이라고 했다.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도 귀를 의심했다. 불과 며칠 전 의사가 “앞으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기에 더욱 믿기지 않았다. 순식간에 병실이 눈물바다가 됐다. 감격의 눈물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참여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임 집사도 처음부터 병원사역에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10년 전 간호사로 근무했었던 그녀는 누구보다 아픈 사람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사역을 함께 섬기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마음을 바꾼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친구가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때 김명수 권사가 양재 병원사역예배에 가보라고 권유했다.

“그곳에 가서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배에서 임 집사는 병원심방사역과 사랑에 빠졌다. 아픈 사람들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시절 환자들을 돌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섬겼더니 기쁨이 샘솟았다. 거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임승자 집사만의 것이 아니다.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을 섬기는 팀원들은 이와 같은 간증 하나씩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함께 참여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지금 바로 양재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에 가자.

양재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양재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A에서 진행된다. 2006년 시작된 병원사역은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35명의 팀원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중보기도하고, 환우 심방을 하고 있다.

문의: 김정숙 팀장 010-4946-3832

‘환우 중보·심방 요청서’ 위치

서빙고: 본관 본당 양쪽에 있는 헌금데스크
양재: 사랑홀 양쪽 문 옆과 헌금데스크
주일은 사랑홀 앞 안내데스크.

‘N공동체’를 아시나요?

재수생들의 비상(飛上)을 위하여!

주일 오전 8시 강남 파고다어학원에서 예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46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도 학부모도 예민한 시기일 수밖에 없다. 재수생들의 부담감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온누리교회에는 재수생들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있다. 바로 N공동체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강남 파고다어학원 7층 이벤트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N공동체는 재수생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차세대와 대학부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위로를 주고 있다. 20여명 모이는 N공동체는 말 그대로 가족 같다. 서로의 힘들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끈끈한지 모른다.

N공동체의 N은 ‘NEXT’를 의미한다. 다음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NEXT’에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 N은 ‘New’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고, E는 ‘Evangelism’으로 전도하자는 의미다. 단순히 공부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자는 것이다. X는 ‘Exodus’로 출애굽기를 말한다. 뒤쳐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다. T는 ‘Table’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교제하면서 서로를 위로한다는 뜻이다.

위로하고, 응원하고, 신앙성장 시키고

“공부하느라 지쳐있는 재수생들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예요. 우리들만의 휴식처예요.”

N공동체 지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다. 그들만을 위한 예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수밖에 없다.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쉼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새 힘도 얻고 있다.



N공동체 학생들이 찬양하고 있다.

장호찬(20세) 형제는 예배드릴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른다. 그 모습만 봐도 간절함이 느껴진다. 그는 지난해 대학에 합격했지만 더 높은 목표를 이루고자 재수를 결심했다.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N공동체 예배는 유일한 쉼의 시간이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과에 대한 긴장감이 덜해지더라고요.”

장성우(21세) 형제는 삼수생이다. 그의 고백도 다르지 않다. 그는 첫 번째 수능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뒤흔들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두 번째 수능에 도전했다. 그런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탓이었을까. 첫 번째 수능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았다. 그 상실감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던 그가 수능이 끝나고 2-3달 동안 지독하게 방황했다. 교회도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 붙여놓았던 말씀구절들을 보는데 다시 교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 그를 맞이해 준 곳이 바로 N공동체다. 누구의 눈치

도 보지 않아도 됐기에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N공동체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지금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N공동체는 재수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할 뿐만 아니라 신앙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승(21세) 형제는 N공동체에 와서 신앙의 폭이 넓어졌다. 이분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세상을 품고 한 사람을 더 이해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원주현(20세) 자매는 “N공동체 예배와 나눔이 신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했고, 장제환(20세) 형제는 “N공동체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켜 준 소금”이라고 고백했다.

N공동체는 수능이 끝나고 2주 뒤에 해산한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새로운 꿈을 품고 도약할 재수생들을 위해 다시 모일 것이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10개월이지만 한 평생 기억될 공동체임에 틀림없다.

사랑하는 딸에게

어느덧 3번째 수능을 보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괜스레 마음이 울컥해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엄마가 이럴 때 너는 어떨까? 엄마 아빠에게 미안해서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삼수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해하는 우리 딸이 무척 대견스럽다. 엄마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안아 주는 것 밖에 해줄 수가 없구나.

딸아, 엄마는 1분도 헛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주님의 시간에는 우연은 없기 때문이란단다. 그 시간 동안 네 자신을 돌아보고, 목표도 되짚어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주셨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좋겠구나. 네가 큰 시험을 앞두고도 주일예배를 섬기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리라고 믿는다. 두 번 좌절하면서 소원해졌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딸아. 마지막 남은 40여 일 동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자.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이판애 성도 (유다혜 학생 어머니)

목회칼럼

“목사님, 저 이제 망했어요.”

몇 해 전 지하철 4호선 출구 앞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한 말이다. 그날은 수학능력시험 날이었다. 시험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 친구의 눈빛과 목소리는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아쉬움을 넘어 절망과 절규에 가까웠다.

대학 입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수학능력시험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결과가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미 반복해서 들었다. 그러나 평정심을 갖고 시험결과를 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과 본인이 노력한 시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입시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교육 기업대표가 출연했다. 그가 이야기한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 중에서 다음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 그는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을 부모 세대의 경험에서 찾았다. 과거 한국경제는 고도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 성장은 고용을 창출했고, 지식 전문가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필요했다. 당시 고등학교 졸업생 중 20% 정도만 대학에 갔으니 대학 교육이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 저성장으로 일자리는 부족하고, 지식은 인터넷이 제공하고, 전체 고등학생 졸업생 중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에 70%가 대학에 간다.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한 시대다. 시험 하나로 인생이 망하고,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시험결과에 흔들리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의 미래를 흔들 수도 있다. 나도 학창 시절 절망적인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시험결과에 대해 묻지 않으셨다. 다음날 자려고 누웠는데 베개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어머니께 묻자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메밀베개야. 아들 머리 좋아지라고~”

그 베개를 베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다려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이 나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

기게 만들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시험결과가 우리에게 기쁨이나 아쉬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자녀들의 됄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자녀들이 존귀한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 획하심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최상이다.



노희태 목사 (차세대 본부장)

황재명 목사의 이사야서 산책 2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구약성경을 보면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뿐만 아니라 역대기에서도 최소 3회나 언급되어 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성경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럼 이사야서를 작성한 저자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의 모든 성도들이 주저 없이 선지자 이사야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약 100년 전 독일의 신학자 B. Duhm은 이사야서가 선지자 이사야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복수의 저자들에 의해 작성 및 편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야서를 제1이사야(이사야 당대, 1~39장), 제2이사야(바벨론 포로기, 40~55장), 제3이사야(예루살렘 귀환 이후 56~66장)로 나누어 이들의 저자가 각각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 주장은 한동안 학계에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복수 저자설은 이사야 45장 1절에 언급된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사야 보다 약 200년 뒤의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사야가 미래의 사람 고레스를 안다는 것, 특히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사실 이런 주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관한 예언 및 환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 외에는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시대에 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언급(historical fact)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 세 부분의 독립성보다는 전체의 통일성과 각 부분의 상호 연관, 의존도를 강조하며 한 권의 이사야서를 인정하고 있다.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사 1:1). 이사야서 전체 문맥을 보아도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구속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1~39장, 정죄와 심판→40~66장, 회복과 궁극적 구원).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는 신적 호칭이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두루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9장에서 13회, 40~66장에서 16회, 총 29회나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주요 근거가 되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계속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관에 ‘혼합주의’ 또는 ‘다원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여호와 유일사상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확립되었다(에스라서 참고).

성서 문학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복수 저자설의 주장은 힘을 잃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사야 본문은 주전 2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쿨란사본(사해사본)의 이사야서 두루마리이다(The Great Isaiah Scroll). 그 두루마리를 보면 이사야 39장과 40장이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다. 만약 Duhm이 주장하듯 제1이사야와 제2이사야가 별개 저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두루마리 밑에서 둘째 줄에 끝나는 39장과 40장을 연결하는 것은

일반적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사야서는 이사야와 후대의 이름 모를 복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그 누군가가 편집한 것이 아니라, 주전 8세기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이사야에 의해 저작되었으며, 유대인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사야서를 한 권의 예언서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약 200년 뒤의 사람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질문 속에 들어있다.

“이사야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스타가 되고자했던 제국의 여인 ‘에스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을 금기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란이에요. 이란의 조상 페르시아가 그리스로부터 빼앗은 패배를 당한 전투가 마라톤의 기원이기 때문이죠. 육지에서의 전투도 있지만 바다에서 치르는 전투도 있어요. 이를 해전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계 4대 해전으로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과 함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살라미스 해전, 스페인과 영국의 칼레 해전, 영국과 프랑스의 트라팔가 해전을 꼽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살라미스 해전은 숙명과도 같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3차 전쟁이에요. BC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원정군을 꾸려서 그리스로 출격했어요.

영화 ‘300’에서도 이 전쟁을 상당히 자세히 묘사했어요. “나는 관대하다”라는 영화 속 대사가 유행이 될 정도였고,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구호로도 불리었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진격했을 때 페르시아의 함대는 1,200척이었는데, 그리스군은 고작 380척밖에 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의 육군이 에게해 북쪽 해안을 따라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진격해오자 스파르타는 좁은 산길인 테르모필레를 전투장소로 결정했어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그리스 연합군 7천명의 보병을 이끌었는데, 페르시아가 비 오듯 뿌려대는 화살 속에서도 창과 방패만으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버텼어요. 그것도 올림피아 제전 중이라 전쟁에 참여한 7천명 가운데 레오니다스가 이끌고 나온 순수한 스파르타 군인들은 정예부대 300명뿐이었어요. 레오니다스와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는 테르모필레의 좁은 계곡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이때 크레스



빌헬름 폰 카울바흐가 그린 살라미스 해전

크세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전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쪽에 위장침자를 보내 “그리스군은 지금 공포에 질려있고, 살라미스에서 더 멀리 도망칠 생각밖에 없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요. 거기에 말려든 크세르크세스가 치른 해전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좁은 살라미스 해협에서의 8시간에 걸친 전투 결과 페르시아 쪽은 200척의 함대가 격침당하고, 200척이 포획당하는 등 그리스 연합군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지요. 언덕 위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을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는 보급로마저 끊어질 위험이 있자 살아남은 소수의 군인들을 데리고 서둘러 퇴각하게 되죠. 크세르크세스 왕은 원대한 꿈을 품고 엄청난 규모의 원정군을 이끌고 출격했지만, 살라미스 해전과 이어진 전투에서 모두 패하고 풀이 죽어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됐죠.

크세르크세스는 구약성경 중 17번째 책인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무려 127도를 다스린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인 크세르크세스 1세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유대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해요(에 1:7).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뿐더러, 배경도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 황제의 겨울궁전인 수산 왕궁이에요. 여주인공 에스더는 이방인 왕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왕과 결혼해요. 그리고 유대인을 말살하려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 앞에 나아갔지요.

원래 유대식 이름이 하닷사인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을 뜻하는 단어로

요. 라틴어로는 스텔라(stella)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스타(star)가 이 단어에서 유래된 거래요. 당시 최고의 페르시아 대제국의 스타로 살 수 있었던 에스더는 사촌오빠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개와 함께 유대 민족을 지켜냈고, 마침내 유대 민족을 넘어 하늘나라의 스타로 등극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 진정한 스타의 삶을 살다 갔어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렸던 유관순 누나를 기억하며 보내는 삼일절처럼, 유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대 명절을 ‘부림절’이라고 해요. 슬픔이 기쁨으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이 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부림절이 되면 지금도 최소한 두 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만들어 보내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좋은 풍습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스타, 에스더의 남편이 살라미스 해전의 패전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던 영화 ‘300’의 페르시아 왕이라니. 인류 역사 곳곳에 숨어있는 성경의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는 스타가 되고자했던 제국의 한 여인을 찾아가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별로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한 역사의 스토리텔러이시기 때문이죠.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 이 글은 조선일보에 2016년 6월 1일 게재된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했습니다.



이달의 신앙의 선배_ 신석구 목사

본지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귀감이 되는 신앙의 선배를 소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신석구 목사다. 그는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신앙인의 중요한 역할임을 몸소 보여줬다.



청주 삼일공원에 있는 신석구 목사 동상.

신석구牧사는 1875년생이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감리교 강원도 홍천구역장(1910.10~1914.08), 경기도 가평구역장(1914.09~1915.09)으로 섬겼고, 춘천지역에서 국민계몽활동(1915.10~1918.10)도 했다. 1910년대는 일제의 무단정치와 토지 약탈 등이 행되던 참담한 시기였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신 목사가 목숨 걸고 항일운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예수님이 있다.

신석구는 뿌리 깊은 유교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 그를 전도한 사람이 고향 친구 김진우다. 신석구가 스물일곱 되던 해 김진우가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했다. 친구 김진우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될 형편이었다. 그때 신석구가 친구를 대신해 감옥에 들어갔다. 친구와의 의리도 있었지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획도 숨어 있었다. 수감생활 3개월 만에 병을 핑계로 석방된 후 거짓으로 사망신고를 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다. 그 길이 진리를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발길 가는대로 도착한 곳은 서울이었다. 그 넓은 서울에서 우연히 고향 친구 김진우를 다시 만났다. 김진우는 약장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친구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약을 팔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김진우가 전도

개인구원 넘어 국권회복을 위하여

해서 신석구가 기독교에 입문했다. 그해가 1907년이다. 신석구는 기독교를 개인의 구원을 넘어 국민계몽과 국권회복운동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는데로 전도했다. 새 사람이 되면 국권회복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감리교 협성성경학원에 수학하고, 개성 북부교회, 흥천읍교회, 서울 수표교교회에서 목회했다.

감방이 나에게서 천당 같다

1918년 신석구 목사가 수표교교회에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목회를 중단했다. 신학교 졸업도 3년 이상 연기했다. 3·1운동을 위해서였다. 주변의 만류에도 그는 이 말씀만 붙들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그에게 3·1운동은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었다. 종교적 저항운동이었다. 그 신념이 그를 혹독한 고문과 재판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신 목사는 오화영 목사로부터 민족대표 참여 권을 받아들이고 33인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참고로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다.

신 목사는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불렀다는 이유로 일본경찰에게 체포·연행

되어 경무총감부에 구금됐다. 서대문형무소로 옮겨져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비결도 신앙이었다.

“세간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다만 묵상기도 하는 중에 영혼을 예비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감방이 나에게서 천당같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자나 깨나 주님께서 늘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으니 말할 수 없는 환희 속에 잠겨 지냈다. 나는 40여 년 신앙생활 중 그때 5개월간 독방생활 할 때같이 기쁨의 생활을 한 때가 없었다.”

1921년 11월 4일 출옥한 후에도 목회활동과 항일운동을 계속 이어갔다. 1930년대 감리교 단 지도부가 신사참배를 결정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했다. 그 일로 다시 투옥되어 갖은 고문을 당했다. 중병이 들어 석방 되었는데도 또 다시 항쟁을 멈추지 않았다. 1945년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지만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심자가였다. “양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며 북한에 남아 반공운동을 했다. 결국 1949년 진남포에서 반공비밀결사를 이끌었다는 죄목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10월10일 평양형무소에서 공산군에게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 80세였다.

충북 청주 삼일공원에 가면 신석구 목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150-1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교회를 알고, 이단을 알면 ‘백전백승’

〈교회와 이단〉

탁지일 저 | 두란노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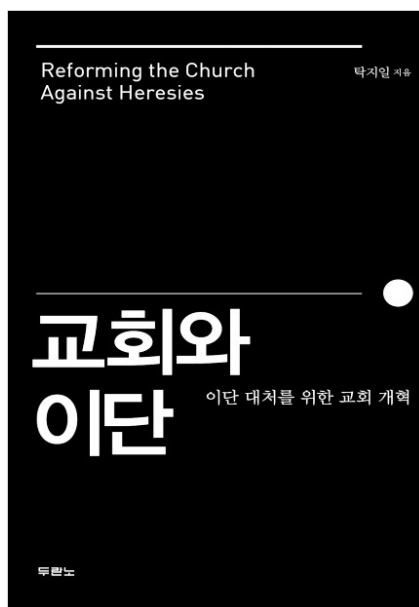
“추수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한국 교회 현관에서 여러 번 봤을직한 문구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해 교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고문구가 등장했다. 실제로 교회에서 당신에게 말을 거는 낯선 사람이 이단일 수도 있다. 경고문은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단 전문가 탁지일 교수가 〈교회와 이단〉이라는 책을 냈다. 이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회의 약점을 알고 이단의 허점을 아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교회를 바로 알고 이단을 바로 알면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탁 교수는 이단에게 보이는 교회의 약점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양적 성장주의, 교파주의, 개교회주의 지도자의 도덕적 문제로 신뢰를 잃은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빛을 되찾을 때 효과적으로 이단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이단의 실체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 주요 이단의 교리적 허점과 그들의 포교 트렌드를 분석했다. 대부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종교적 역기능을 희석하고 있었다. 이단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결혼, 하고 싶다〉

매트 찬들러 저 | 두란노 | 13,000원

연애와 결혼, 생각만해도 좋은데...

연애와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선남선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청년부 순모임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연애와 결혼이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은 중요한 문제다. 형제도 하고 싶고, 자매도 하고 싶은 것이 결혼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연애와 결혼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매트 찬들러가 쓴 〈결혼, 하고 싶다〉이다.

이 책은 미국 빌리지교회 수석목사 매트 찬들러가 남녀관계, 성, 결혼으로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썼다. 저자는 아가서를 중심으로 성경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물론 연애와 결혼을 글로 배울 수는 없지만, 성경적 연애와 결혼 노하우는 배울 수 있다.

설레는 연애, 불같은 구애, 사랑의 깊은 약속, 갈등, 부부의 사랑, 함께 늙어가는 삶까지. 남녀의 만남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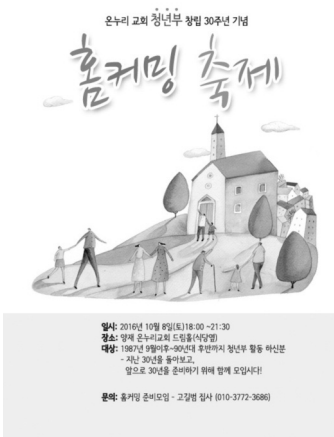


알려준다.

솔로들에게 가슴 시린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결혼, 하고 싶다〉를 읽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자. 꼭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부 창립 30주년 기념, 홈커밍 축제!

10월 8일 오후 6시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



온누리교회 청년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 축제’가 오는 10월 8일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개최된다. 참석대상은 1986년 9월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활동을 했던 모든 성도다. 청년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펼쳐질 예정이다. 친목과 교제도 빼놓을 수 없다.

온누리교회 청년부는 1986년 9월 창립되었다. 올해로 꼭 30주년이 됐다. 다수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두란

노해외선교회(TIM) 파송 선교사 절반 이상이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일 정도로 역동성을 자랑한다.

홈커밍 축제 준비위원장 고길범 집사는 “온누리교회 청년부 초창기 구성원들이 지금 50대 중반 리더십으로 변모했다”면서 “30년 만에 청년부에서 다시 만나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 교회와 청년부를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3772-368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재 권사 성가대가 첫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양재 권사 성가대 제1회 정기연주회 개최

양재 권사 성가대가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2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권사 62명이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였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총 15곡을 불렀다.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담임)는 “이번 연주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

할 것”이라고 했고, 이환인 권사(양재 성가대 팀장)는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을 전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임은희 성도(분당A공동체)는 “찬양하는 권사님들의 표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4부 예배 성가대 대원 모집

서빙고 4부 예배 성가대 온누리 워십콰이어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한다. 매월 마지막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서빙고 지하 1층 성가대실에서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등록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2448-0502

예배학교 3기 모집

3기 서빙고 예배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진정한 예배와 찬양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스쿨이다. 10월 9일부터 5주 동안 주일 오후 1시30분 서빙고 근린공원 온누리기독교전시관에서 열린다. 회비는 2만원.

문의: 010-7142-9167

28기 이혼자행복학교 모집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28기 이혼자행복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5주 동안 진행된다. 등록비 10만원.

문의: 010-2539-5665

안산M센터 봉사자 모집

안산M센터에서 문화강좌와 승합차량운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화강좌는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네일아트, 메이크업, 예쁜글씨(POP), MOS, 엑셀 자격증반 등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문의: 031-491-9650

두란노해외선교회 남아시아 전략회의 실시

팀 단위 사역 매뉴얼 안내, 국가별 전략팀 계획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홍콩에서 남아시아 전략회의를 했다. 남아시아 전략회의는 팀 단위 사역 매뉴얼 안내, 국가별 전략팀 구성 및 사역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지 선교사 40여 명과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목사(이전선교본부장), 황종연 본부장(Acts29 비전빌리지 원장), 신현승 장로 등이 참

석했다. 이번 남아시아 전략회의에서 김홍주 목사와 김광동 주홍콩 총영사는 각각 ‘융합선교와 온누리선교’와 ‘세계선교와 선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홍범식 장로(TIM 본부)는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진심어린 소통을 하면서 지역교회와 선교사들은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한마음 축구대회 서빙고 우승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주최한 제10회 한마음 축구대회에서 서빙고가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빙고, 양재, 수원, 남양주, 평택,

서산 온누리교회팀이 참가했다. 한마음 축구대회는 매년 친목도 모를 위해 개최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오사카 기·도·제·목

- 10월3일(월) 러브소나타 집회 가운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 10월4일(화)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 10월5일(수) 많은 협력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 10월6일(목) 행사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건강과 지혜를 지켜주시기를
- 10월7일(금) 이재훈 목사, 출연진들과 강사들 가운데 기쁨 부으심이 있기를
- 10월8일(토)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 10월9일(주일) 집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양재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개강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개강한다.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행된다. 1주차와 4주차는 남한산성 목사의 집, 2주차와 3주차는 광림수도원에서 열린다.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콜, 홈페이지(www.onnurifamily.com),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24가정을 선

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가정당 25만원. 자녀를 동반할 경우 1인당 3만원이 추가된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가정의 성경적 모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돕고 있다. 부부 대화, 성, 치유, 하나님의 가정 원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김동수 총무

010-6340-5234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그때 그 감동이 재연됐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후속집회 ‘송솔나무 콘서트’

일본 오카야마에서 러브소나타 집회의 감동이 재연됐다. 지난 9월 11일, 오카야마 코난교회에서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초청 콘서트가 열린 것.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오카야마 교계 관계자와 성도들은 하나같이 “러브소나타 집회의 감동이 재연됐다”고 고백했다.

조정미 성도(리버사이드처치오카야마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엿보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이케다 유이치 전도사(사이다이교회)는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 나카오 요시아 목사(히가시오카

야마 그리스도교회)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번 집회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일본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러브소나타 오사카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월 22일~24일 인천-간사이국제공항으로 오가는 일정의 참가자를 10월 9일까지 모집한다. 참가비는 82만원(항공, 현지 체류비 일체 포함).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43기 젊은부부학교 수료간증



/ 이영훈, 이경연 부부

신혼 초, 연애 시절에는 상상하지 못한 갈등과 서로 다름을 경험했다. 부부학교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할 정도였지만 주말에도 출근하는 신랑의 일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의 갈등은 서서히 줄었고,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신혼 초에 꼭 필요할 것 같던 부부학교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43기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았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하게 되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듣는 강의마다 너무나 친숙했다. 강사들도 우리 부부가 했던 고민과 문제들을 겪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돌파한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면서 누구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젊은부부학교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묵상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였고, 모든 갈등은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신랑이 조금씩 반응하고,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기뻐다. 남편은 첫째 날 강의를 너무나 재미있게 경청하고는 다음 주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엿보였다. 3주차 1박 2일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음 기수에 스태프로 섬기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젊은부부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역할분담, 진행이 탁월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첫날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이 만족스럽고 좋았다.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하면서 남편의 진로와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남편은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좀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았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젊은부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신랑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남편과 나, 우리 가정에 희망을 심어주실 것을 믿는다. 귀한 시간 섬겨주신 젊은부부학교 스태프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 SNS공동체 은광원 ODO 간증



/ 이호준 형제(SNS공동체)

무능력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은광원에 가기 전까지 말이다. 나는 게임과학교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지금은 공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적응할 만하면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진학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또 어떤 진로와 미래가 주어질까 늘 불안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걸까?”

날마다 걱정에 파묻혀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던 중 같은 순에 있는 마음씨 좋고 착한 동생의 권유로 ‘은광원 ODO(one day outreach)’를 가게 됐다. 은광원은 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거리가 가까워 아무런 고민 없이 참여했다.

“스스로 말을 하거나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분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고민이 자라기 시작했다. 은광원에 도착했을 때도 고민이 떠나지 않았다. 생각보다 불편해 보이는 분들을 보고는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체장애인

들을 도와드렸다. 내가 도와드린 분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하실 수 없었다. 나는 그분 옆에서 쉴 새 없이 떠들고, 종이 저금통을 꾸미고, 과자집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분은 교제시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별 반응이 없었다.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내 팔을 끌어 당겼다. 그리고 내 손목에 있던 시계를 만지면서 미소를 보이었다. 그 미소가 어쩌나 포근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단순히 시계를 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미소는 주님의 미소 같았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미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제야 주님이 나를 은광원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게 땅에만 내리거나 양털에만 내리는 이슬의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미래를 불안해하는 나에게 은광원에서 만난 한 지체의 미소는 가늠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낙담하고 지쳐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아름다운 미소로 위로해 주실 것도 믿는다.

■ 양재 주의빛성가대 강릉 목계교회 아웃리치



/ 김기진 성도(양재공동체)

그곳에서 만난 우리 엄마

가마솥보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아웃리치를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에 아웃리치를 또 가게 됐다. 이번에는 강릉 목계교회였다.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아웃리치였다. 의료사역, 발마사지, 이미용봉사, 마을보수, 전도 등 기존에 해오던 사역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싶어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웃리치가 시작되자마자 나의 걱정을 깨트리셨다. 전도에 사용할거라며 몇 주 전부터 수세미를 손수 만드시는 권사님과 교통사고와 무릎 수술로 다리가 성치 않은 집사님이 마을잔치와 아웃리치 팀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도 떠올랐다.

선발대가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할머니들께 파마를 해드리고 있었다. 나는 발마사지팀에 소속되어 할머니들의 발을 주물러 드렸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예쁘고 귀해 보였다. 할머니들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났다.

살아계셨으면 올해 칠십이 되셨을 우리 엄마. 웃을 때 입가 양쪽에 볼우물이 파이는 우리 엄마.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우리 엄마의 웃음을 발마사지를 받으시는 할머니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아들만 둘 있다는 한 할머니께서는 나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기진아, 너는 왜 하늘나라에 가서 볼 수 있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니? 여기에 앉아 계신 이 할머니가 네 엄마란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가 너의 진정한 식구란다”

교회본당에서 수액을 맞으시며 행복해하시는 할머니, 마을잔치에서 먹는 건 나중에 먹어도 된다고 박수치시던 할머니, 주일에 씩씩하게 특수를 하시던 할머니 모두가 나의 엄마였다.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전국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리운 엄마를 만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만난 엄마들을 위해 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강릉에서 만난 엄마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임종할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최범 부: 최병엽 모: 김지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축복

나는 26살에 결혼했다. 결혼한지 한 달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동시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막중해졌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기도로 출산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로웠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까지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초심과 믿음이 흔들렸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만치 않았다. 회사생활의 바쁨과 고단함으로 가정에 소홀해지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가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해야 했다.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 우리 부부는 말다툼하기 일췌였다. 그러다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부부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듯 했다. 많은 시험도 들었다. 아이가 아프거나 육아로 몸이 힘든 날에는 집에서 TV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는 날도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책감이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합리화하고 익숙해

지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로 잡아주시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에 대해 기도했던 부분들이 응답되었다. 우리가 문제를 겪은 이유도 알려주셨다. 믿음의 자손을 키우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우리 부부를 연단하신 것이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부부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다. 더 강하고 은혜로운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전보다 성숙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얻었다. 두 달 후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생명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명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사회에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약하고 또 약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정재륜 목사의 신앙에세이

예수가 답이다



정재륜 목사
(서빙고 열린새신자
예배 담당)

가을은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실감하는 때이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극대화되고, 이루지 못했던 꿈을 다시 이루고 싶은 변화를 의미한다.

지난 4년 동안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다. 2년 전 가을, ‘달팽이 편지’를 주제로 자신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당시 CGNTV로 예배를 드린 국내,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세계 곳곳의 성도들도 편지를 보내왔다. 이듬해 그 편지를 다시 보내줬다. 편지 내용을 읽고 살던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평평 울었다. 그 편지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답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가을은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절이다. 초신자든, 기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가을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다. 우리의 역할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주는 것이다. 전도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성품, 사상, 성격이 변화되고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변화되면 주변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먼저 우리의 작고 큰 변화를 이야기해 줄 것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내 삶은 너무 힘들어. 너의 변화된 모습을 닮고 싶어.”

“요즘 너의 삶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비결이 뭐야?”

“나도 한 수만 가르쳐줘. 그 예배에 나도 데려가면 안 돼?”

이것이 전도의 비결이다. 올해에는 예수 안에서 꼭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비신자들은 소망을 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닮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매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 아파트에서, 카페에서, 단골집에서 예수를 소개한다. 필자에게 예수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발로 예배드리러 온다. 그리고 변화되어 성가대와 주일학교를 섬긴다. 이것이 필자가 지난 4년 동안 경험한 기적이었다. 필자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삶이 변화 되려면 예수를 깊이 만나야 한다. 예수와 정면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 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삶이 변화되면 자연스레 전도가 된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따뜻한,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배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도란 예수의 흔적으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삶의 변화를 묻는 이들에게 마음껏 예수를 소개하는 진정성 있는 행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전도가 된다. 오늘 단 하루라도 한 영혼에게 다가가보는 것이 어떨까.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벧전 3:15).

권사칼럼

밀알양상블을 도와주세요!



송명애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나의 아들 김어령군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적장애를 가졌지만 절대청음을 가졌고 잘생긴 청년이다. 아기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선생님을 찾았지만 특별한 아이를 받아주는 선생님을 찾기가 어려웠다.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악기나 음악 CD를 사주는 것, 즉 음악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저 어령이가 음악으로 행복하기를 바랐다. 어령이는 초등학교 1학년 즈음 되자 베토벤 음악을 섭렵했다. 마땅한 음악 선생님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에 사랑챔버를 만들어 주셨다. 그때부터 어령군은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챔버에서 정현애 권사님과 장윤정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첼로를 가르쳐주셨다.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배운 것을 열심히 연습시키는 것뿐이었다. 어령군의 첼로 실력이 늘어갔고, 백석예술대학교를 거쳐 세종대학교 음악과 대학원을 졸업하기에 이르렀다.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장애인사역 단체인 한국밀알선교단에 연주를 하러 갔다. 그때

밀알선교단 단장님의 권유로 밀알양상블이 탄생하게 되었다. 밀알양상블에는 시각, 지체, 지적, 장애인연주자와 비장애인 리더가 함께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는 행복한 ‘밀알들의 음악회’를 개최 하고 있다.

밀알양상블 단원들이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연주자 6명과 보호자 6명이 라오스로 선교연주를 떠나게 된다. 김어령군에게 첼로를 배우게 해준 온누리 사랑챔버의 열매라는 생각이 든다. 밀알양상블의 연주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또한 밀알양상블 가족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장애인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오스 재활원에서 열리는 ‘힐링음악회’와 교민들을 위한 ‘복숭아꽃 살구꽃 음악회’ 등 10여 차례의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밀알양상블 음악회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라오스에서 진행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은행 1005-202-997454(밀알양상블)

문의: 010-8933-6555



장로칼럼



남명현 장로
(영등포구로공동체)

최근 은퇴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시니어선교자원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11년 80세(여자 84.4세, 남자 77.6세)를 넘어섰고, 활동 가능한 노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도 2005년 이미 68세였다. 최근 유엔은 건강수명 연장 현상을 반영해 인간의 연령단계를 1~17세 미성년자, 18~6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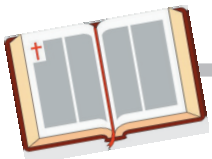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규정하였다. 60~70대가 ‘신중년’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 열정, 에너지가 넘치는 세대가 되었다.

최근 1955~63년 사이에 출생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이 은퇴 세대에 진입하였다.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비율을 15%라고 가정하면 어림잡아도 100만 명이 넘는다. 하나님께서 시니어들을 한국교회의 잠재된 선교자원으로 보시는 것이 분명하다. 시니어들은 삶의 성공과 실패 경험에 바탕을 둔 지혜와 유연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의 삶 속에 체화된 신앙인격과 다양한 신앙훈련 경험은 소중한 선교자산으로 쓰임 받

을 수 있다.

또한 시니어들은 직업과 사회생활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검증된 재능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과 경제, 문화를 발전시킨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도전 자세도 지니고 있다. 자녀양육의 부담이 없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점과 유학이나 주재원, 사업, 출장, 여행 등 다양한 이력으로 외국 문화를 경험해봤기에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은 것도 이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니어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 등 성경 속 시니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은 것처럼 이 시대 시니어들을 불러내셔서 선교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시니어들은 선교에 자원하는 마음이 순수할 수밖에 없고,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강점도 너무 많다. 시니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다음 세대의 분을 보아서 예언하는 자녀들과 환상을 본 젊은이들이 일어나도록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성령 안에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는 그 날을 꿈꾼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내안에 머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죽음이 겸손의 완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꽃에 맺히는 완전한 열매입니다.”

겸손만이 완전한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만이 겸손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겸손에서 썩어 나서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은 겸손한 상태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내가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롬 6:11).

‘여긴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입니다. 겸손이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만듭니다. 스스로가 고상하고, 교양 있고, 똑똑해서 믿음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겸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지도 모르면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의 겸손까지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니까.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주장하고,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리스도의 임재가운데 살면 가능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을 이룹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2절).

교만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교만은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의 대립과 분열 안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잘못돼서 대립과 분열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교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같은 생각뿐만 아니라 같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적인 영역에서의 동의뿐만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도 하나 됨이 이뤄집니다. 지도자가 교만하면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지만 지도자가 겸손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하나 되게 하고,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겸손한 사람이 여러 모로 더 나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실제로도 그 사람이 더 나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란 능력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는 것에서 만족합니다. 비교를 통해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교만한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가진 것으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잘났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잘났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비교에서 오는 즐거움이 없다면 교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권력욕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은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교만은 남이 실패할 때 기뻐합니다. 남이 성공하면 배가 아픕니다. 누군가 영적인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일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성공처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의 실패처럼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교만은 가장 큰 원수요, 마지막 원수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가장 위대한 친구로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삶이 영적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을 통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우리 안에 없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고난을 부인하고, 피하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겸손을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_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앞두고



유미호 실장
(한국교회환경연구소)

10월 9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웃과 성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동차 핸들을 놓은 온누리교회를 바라보시고 환하게 웃으실 것 같다. 사실 자동차 핸들을 놓기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차가 주는 편리함과 신속성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승용차는 무려 2천만 대이다. 자전거보다 더 많아졌다. 과거 자전거를 타던 시절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일까? 그렇다면 그만큼 더 행복했을까? 자전거를 즐겨 타던 시절이 더 행복했는지도 모른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신사용 자전거, 큰 짐을 싣고도 흔들림 없던 짐 자전거, 핸들이 아래로 굽어져 있는 경주용 자전거, 타고 내리기가 편하고 장바구니를 단 주

부용 자전거, 따르릉따르릉 거리던 세발자전거까지 자전거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일상의 행복이었다. 이제는 자동차가 당시 자전거의 3배 이상 많아졌다. 자동차는 사람들이 보름내지 한 달 동안 들이마실 산소를 겨우 한 시간 만에 소비한다. 또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에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산성비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전용도로와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 자전거가 1,600만 인구보다 많다. 1,800만대나 된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모든 여행의 3분의 1이 자전거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독일의 뮌스터와 쾰른에서는 자전거에 최우선 통행권을 주고 있으며, 일본의 쓰쿠바시는 자전거 도로가 중심 도로이고, 자동차도로는 보조 도로라고 한다. 코펜하겐에서는 출퇴근자의 33%, 일본에서는 출퇴근자의 15%가 자전거를 이용

하고 있다. 자전거는 경제적이다. 16km를 자전거로 가면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에너지도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350kcal가 소모된다. 자동차는 18,600kcal(밥 522공기)나 든다. 자동차에 필요한 도로와 주차 공간 등 시설을 짓고 유지하는 데에도 큰돈이 들어간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비용은 km당 350억 원이나 된다. 만약 중국이 미국만큼 자동차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경작지의 40%가 편입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자전거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은 대기오염이 전혀 없고, 많이 타면 탈수록 건강해진다는 점이다. 자전거는 지구의 숨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이 자동차 뒤통무니에서 나오는데, 타지 않으면 그만큼 탄소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지구가 시원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줄어든 것이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자전거 생산이 자동차 생산보다 2배나 더 많다. 1억대나 생산되고 있다.

최대 시장은 자전거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이고, 그 뒤를 미국이 쫓고 있다. 중국은 가장 많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이나 레저용이 아니라 출퇴근 등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 인처럼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석유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유가가 오를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견딜 수 없을테니 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노라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박수를 보낸다. 이미 자동차 핸들을 내려놓고 ‘뚜박이’가 되어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다니는 이들도 있다. 때로는 걸어가기에는 멀고, 차 타기에는 아까운 거리라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파릉이’를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파릉이는 대여하는 곳과 반납하는 곳이 달라도 된다. 하나뿐인 지구에 가장 알맞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자.

자전거를 타자!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당 B102호

문의 :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뵐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워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 선교관 403호

문의 :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사랑의줄잇기' 온라인 쇼핑몰 자원

봉사자 모집

대상 : SNS를 하고 계신 분(6명 모집)

일시 : 상시모집(단기 10월 10일까지)

내용 : '사랑의줄잇기'의 여러 무브먼트 기

획 및 실행, 기부기업 및 개인 발굴 등.

장소 : 서빙고 신동아쇼핑 내 사랑의줄잇기

문의 : 조현정 간사(010-9737-0776)

일대일 과목별 특강 안내

일시 : 주일 오전 8:10~10:10

장소 : 서빙고 선교관 101호

강의 : 10/9 전도 여성인 목사

10/16 전도 박철웅 목사

참가자격 : 모든 양육자

두란노아버지학교 자원자 모집

일시 : 10월15일~11월12일(매주토요일 오후4시)

장소 : 양재 온누리교회(화평홀)

회비 : 120,000

접수 : 02-2182-9100 / www.father.or.kr

문의 : 김재덕(010-9789-7316)

아이스쿨에서 등록가능합니다

서빙고 일대일사역팀 차세대부 스테

프 모임

모집분야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사역

자격 : 어린이와 가정 사역에 비전 있는

성도로서 양육자

지원방식 : 소정의 사역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 후 제출~10월말까지

접수 : 서빙고 본관 로비 일대일안내데스크

문의 : 박준영 총무 010-4705-2179,

jypark115@hanmail.net

국악찬양팀 팀원 모집

분야 : 사물놀이 등 타악 경험자 및 배울분

모임 :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반(서빙고)

문의 : 010-6281-9121

아트비전 특별전 개최

장소 : 국동방송국 내 국동갤러리

기간 : 10월 5일까지

내용 : 그림큐티가 있는 자리

문의 : 황해성 팀장(010-4876-2354)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 주일 오후 2:00

장소 :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 매 주일 10시 미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 양재 화평홀

문의 :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 이현주 간사(02-570-7553)

POINT5 베이스 기타 봉사자 모집

예배시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

